



호르무즈 해협 불안에 대한 평가

통제불능 리스크로 확대 가능성 낮음

- 미국-이란의 군사적 충돌 재개됐으나 양측 모두 해협 재개방이 전략적으로 유리
- 트럼프가 해협 통항료 징수를 직접 언급한 점은 향후 뉴노멀을 시사
- 금융시장은 상황을 주시하되 아직은 제한적 위험으로 관리 가능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항을 둘러싸고 다시 군사적 충돌 중이나, 양측의 전략적 최종 목표는 해협의 재개방으로 수렴. 쟁점은 전후 해협 관리에서 누가 얼마나 통제권을 행사하느냐이나, 이 간극은 충분히 좁힐 수 있음.

이란은 해협 통제력을 미국, 이스라엘에 대한 승리의 상징이자 체제 생존의 보증으로 인식. 글로벌 경제에 대한 '대량 교란 무기'로서 가장 강력한 억지 수단으로 보는 것. 때문에 5월 '페르시아만 해협청(PGSA)'을 설립하고 새로운 전략적 규칙 수립을 추구하던 중이었음.

이에 대해 미국이 오만 영해 경유 해협 남측 우회로를 '뉴노멀'로 정착시키려 하자, 이란은 협상 레버리지와 억지력 약화를 우려해 해당 항로 선박에 발포했고 이는 수개월만의 최대 규모 미군 폭격과 휴전 종료 선언으로 이어짐.

그러나 타협의 공간은 여전히 존재. 이란 원유 수출의 80~90%를 구매하는 중국이 해협 재개방을 필요로 하며, 이란의 통제 방식을 지지하지 않고 있음. 중국은 테헤란을 중간 지대로 유도할 가장 유력한 조정자. 또한 해협의 교란이 길어질수록 각국의 우회 다변화로 해협의 미래 가치가 하락하게 된다는 점도 이란에게 딜레마.

이러한 구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통항료 직접 징수를 언급한 것은 변수. 이는 장기적으로 이란의 역할을 반영하는 역내 통항 서비스 요금 체계 수립 가능성을 내포. 트럼프가 (비록 철회했으나) 20% 통항료를 언급하며 이 개념을 사실상 정당화한 만큼, 미국도 향후 요금 체계 참여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는 것.

3월 이후 전쟁에서 양측은 군사적 옵션의 한계를 모두 확인. 대치가 길어질수록 양측은 전쟁의 악순환에 갇힐 뿐이며, 결국 외교로 복귀할 수밖에 없을 것. 때문에 다양한 해법이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짐. 이란도 제재 면제 확보 가능성 측면에서 협상 프로세스를 수용할 유인이 있음.

단기적으로는 (미국 묵인 하에) 오만-이란 공동 관제센터를 통한 남·북 항로 균등·무료 통항과 미-이란 간 충돌 방지 합의 등이 모색 중. 장기적으로는 국제법을 토대로 한 통항료 징수와 이에 부합하는 서비스 제공 등 규칙 수립이 필요.

이상과 같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전면전 등 불확실성이 크게 상승할 가능성은 여전히 낮다고 판단. 제한적 위험으로 평가하며 상황 주시.

Compliance Note

본 조사항목은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본 조사항목은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경, 대여할 수 없습니다. 본 조사항목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 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습니다.

삼성증권

삼성증권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1(삼성전자빌딩)
Tel: 02 2020 8000 / www.samsungpop.com

삼성증권 Family Center: 1588 2323

고객 불편사항 접수: 080 911 0900



Member of
**Dow Jones
Sustainability Indices**
Powered by the S&P Global CSA